

##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관계 내 파워의 양면성\*

김 세 현                      한 정 윤                      허 태 균†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외도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둘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를 보완, 확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인-상황 상호작용 관점에 의거하여, 개인적 요인인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상황적 요인인 관계 내 파워가 외도 의도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력과 둘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상호작용효과가 남녀에게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도 탐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67명의 성인 남녀에게 개인의 자기애적 성격 수준을 측정하는 질문지와, 관계 내 파워가 조작된 시나리오를 읽은 뒤, 주어진 가상의 외도 가능 상황에서의 외도 의도를 묻는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외도 의도에 대한 자기애적 성격 특성의 영향력은 남녀 관계없이 일관되게 정적 방향으로 나타났고, 관계 내 파워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그리고 외도 의도에 대한 둘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관계 내 파워가 높은 경우,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간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관계 내 파워가 낮을 때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간의 정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외도 의도에 대해 관계 내 파워와 자기애적 성격 특성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간의 정적 관계가 관계 내 파워가 낮을 때 유의한 반면, 여성은 관계 내 파워가 높을 때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외도 의도에 대한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의 상호작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외도 의도, 관계 내 파워, 자기애적 성격 특성, 성차, 개인 × 상황 상호작용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2862, E-mail: tkhur@korea.ac.kr



© 2022,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낭만적 관계에서 이별로 이어지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외도이다(Lampard, 2014). 외도는 단순히 낭만적 관계의 종결에 따른 심리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폭행, 살인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도 확장될 수 있다(뉴스1, 2021). 이처럼 외도가 각종 개인적,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현재의 낭만적 상대가 아닌 타인과의 부적절한 성적 혹은 정신적 교류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 미국에서 실시한 연구(Garcia, Reiber, Massey, & Merriwether, 2012)는 대학생 중 약 70%가 일회성 외도를 경험했다는 결과를 보고했으며, Drigotas와 Barta(2001)는 낭만적 관계 중에 외도를 시도한 참여자가 25% 이상임을 밝혔다. 국내 여론 조사(서울신문, 2015) 결과에서도 조사에 참여한 2000명 기혼 남녀 중 24.2%인 484명이 외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도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과 설명은 심리학이 사회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기에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간의 정적 관계를 확인한 기존 연구들에서 더 발전하여, 자기에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간에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변인으로써 관계 내 파워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낭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외도와 자기에적 성격 특성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는 정적인 방향으로 일관되었지만, 파워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일관적이지 못했다. 대다수의 연구들은 관계 내 파워와 외도 간의 정적 관계를 보고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둘 간의 관계가 부적이거나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변인들을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의 차원에서 모두 아울러 살펴보고 그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외도 의도에 대해 개인적 요인으로서 자기에적 성격 특성과 상황적 요인으로서 관계 내 파워가 가진 영향력을 확인하고, 두 요인의 역동성을 개인과 상황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 외도의 정의

일반적으로 외도는 현재 낭만적 관계의 상대가 아닌 타인과 성적, 정서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처럼 많은 연구에서는 외도를 크게 성적 외도와 정서적 외도로 구분하지만(Buss, Larsen, Westen, & Semmelroth, 1992; Daly, Wilson, & Weghorst, 1982), 그 두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히 성적 외도는 비교적 확실한 기준이 있는 반면에, 정서적 외도는 그 정도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며(예. Buss et al., 1999; Henline, Lamke, & Howard, 2007; Luo, Cartun, & Snider, 2010; Shackelford, LeBlanc, & Drass, 2001), 심지어 때에 따라 우정과 정서적 외도를 확실하게 나누기 모호할 수도 있다(Whisman & Wager, 2005).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외도는 상대적으로 불명확하고,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Guitar et al., 2016),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있는 성적 외도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정서적인 요소가 제외되고 오직 성적인 행위만을 전제로 한 외도인 일회성 외도(Grello, Welsh, & Harper, 2006; Lalasz & Weigel, 2011; Moller & Vossler, 2015; Pittman, 1993)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편, 외도를 주제로 연구하기 위해 피험자들의 외도 행동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윤리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의 문제로 인해 실제보다 과소 추정되어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다(Alexander & Fisher, 2003). 따라서 이전 연구(김세현 등, 2017)를 참고하여 외도 행동이 아닌 외도 의도를 측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최대한 극복하고자 한다.

한편, 외도 의도는 일관되게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인다(Buss & Shackelford, 1997; Lalasz & Weigel, 2011; Schmitt, 2003). Atkins 등(2001)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외도 경험을 조사하였는데,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연령대

에 외도가 증가하지만, 일반적으로 남성이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사실 외도에서의 성차는 경험적으로도 직관적이다. 국내 조사 결과에서 외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전 연령대에 걸쳐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서울신문, 2015). 이는 Atkins 등(2001)의 연구 결과가 국내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도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서 성차가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 외도 의도의 개인적 요인으로서의 자기애적 성격 특성

낭만적 관계에서 외도를 일관되게 예측하는 대표적인 개인적 요인은 자기애적 성격 특성(narcissistic personality)이다(예, 김세현 등, 2017; Buss & Shackelford, 1997; Drigotas, Safstrom, & Gentilia, 1999). 자기애적 성격은 대인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변인으로(Carroll, Hoeningmann-Stovall, & Whitehead, 1996; Campbell, 1999; Campbell & Foster, 2002), 자기도취, 웅대한 자기상, 타인 착취, 본인에 대한 특권 인식, 공감하지 않는 태도 등을 포함하는 개인적 성격 특성으로 정의된다(Emmons, 1984, 1987). 김세현 등(2017)의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의 정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성별과는 독립적으로 외도 의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혔다. 즉, 남성이든 여성이든 높은 수준의 자기애적 성격 특성을 가진 개인이 더 높은 수준의 외도 의도를 보인다는 의미이다. 또한, 상황적 요인(관계 내 투자 정도, 외도 대상의 매력도)이 외도 의도에 서로 반대 방향(증가와 감소 혹은 감소와 증가)으로 영향을 미칠 때도 자기애적 성격과 외도 의도 간의 정적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높은 개인은 상황적 요인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외도 의도를 보였다.

이외에도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사이의 정적 관계를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기애적 성격 특성은 관계에서의 헌신(commitment)과 부적 관계를 나타낸다(우성범, 남숙경, 이승민, 양은주, 2012; Campbell & Foster, 2002). 헌신은 개인을 관계에 몰입시킴과 동시에 그 관계를 존속시키는데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서(Rusbult, 1980), 외도와는 부적 관계(Drigotas et al., 1999)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사이의 정적 관계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덧붙여,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헌신의 부적 관계를 루두스(ludus)적 사랑 태도가 매개한다는 연구 결과(Campbell, Foster, & Finkel, 2002)도 있다. 루두스적 사랑이란 유희적인(game-playing) 사랑을 의미하는데,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 Hensley(1996)의 연구에서는 성별효과 및 대인 관계의 질적 측면(deepening relationship)과는 독립적으로 루두스적 사랑 태도가 높을수록 성적 관계의 파트너 수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Foster, Shrira, 그리고 Campbell(2006)의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헌신 간의 부적 관계를 사회-성적 지향성(socio-sexuality)으로 설명하였다. 사회-성적 지향성이 개방적인 사람들의 경우 일회적이거나 정서적 몰입이 없는 성적 관계를 선호하는데(Simpson & Gangestad, 1991), 자기애적 성격 특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개방적인 사회-성적 지향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통해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높은 개인이 낭만적 관계에 임할 때, 일회적이고, 정서적 몰입이 부족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일관된 기존 연구 결과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도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요인으로서 자기애적 성격 특성을 선정하여 그 관계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밝혔듯이,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간의 관계에 성차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며, 기존 연구(김세현 등, 2017)를 바탕으로 자기애적 성격 특성은 성별에 관계없이 외도 의도를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외도 의도의 상황적 요인으로서의 관계 내 파워

파워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는데(Reis, Collins, & Berscheid, 2000),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상대방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주로 영향력의 관점에서 정의된다(Simpson, Farrell, Orina, & Rothman, 2014). 인간은 낭만적 관계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인 관계 내에서 파워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Galinsky et al., 2008), 이러한 파워는 곧 사회적 상황 속에서 개인의 의도 및 행동 등 관계 내 다양한 역동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예. Dunbar & Burgoon, 2005; Gruenfeld, Inesi, Magee, & Galinsky, 2008). 낭만적 관계도 대인 관계의 하위 범주이기 때문에 파워는 연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연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낭만적 관계에서 파워는 상대방에 대한 의존 정도(Berman & Frazier, 2005), 지각하는 관계 내 지위(Neff & Suizzo, 2006), 의사결정(Bentley, Galliher, & Ferguson, 2007; Felmllee, 1994), 상대적인 경제적/사회적 지위(Bentley et al., 2007), 상대방에 대한 희생 정도와 정서적 몰입(Felmllee, 1994) 등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다양한 연구에서 파워와 외도 간의 정적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Atkins et al., 2001; Lammers, Stoker, Jordan, Pollmann, & Stapel, 2011; Zhang, 2010). 예를 들어 Atkins 등(2001)은 낭만적 관계 내 파워의 불균형이 외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Zhang(2010)은 중국 사회 내에서 여성 외도가 증가한 현상을 사회 진출로 인한 여성의 파워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파워와 외도 간의 정적 관계에 대해서는 성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Lammers & Maner,

2016). 이러한 파워와 외도 간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높은 파워를 지닌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외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Atkins et al., 2002; Zhang, 2010). 둘째로, 높은 파워를 지닌 사람의 개인적 특성이 곧 외도하기 쉬운 특성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Kunstman & Maner, 2011; Lammers et al., 2011; Lammers & Maner, 2016). 한 예로, Lammer 등(2011)은 이성을 유혹하는 데 대한 자신감이 파워와 외도의 관계를 매개함을 밝혔다. 즉, 높은 파워가 이성 유혹의 자신감으로 이어짐으로써, 개인이 파워를 통해 외도하기 용이한 개인적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성 유혹의 자신감을 통해 파워와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종속변인을 외도 의도 혹은 외도 행동으로 두었을 때 모두 유의하였다. 또한 성별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파워가 더 높은 설명력을 지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파워와 외도 간의 정적 관계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봤을 때, 높은 파워를 지니고 있어도 외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낮은 파워를 지니고 있더라도 외도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또한, 학술적으로도 항상 파워와 외도의 관계가 정적 방향으로 보고되는 것은 아니다(예. Davoudian, 2014; Munsch, 2015). Davoudian(201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참여자들에게 파워의 높고 낮음을 조작하였으나, 이와 같은 파워 조작에 따른 외도 의도의 직접적인 차이는 없었다. 심지어 Munsch(2015)는 오히려 파워가 높을수록 외도 행동이 감소하는 부적 관계를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결혼 생활에서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즉, 결혼 생활에서의 상대적인 파워가 낮을수록 더 외도에 관여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커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처지에 있는 경우에 외도가 무너진 관계의 평등을 회복시키는 하나의 해결책(Prins, Buunk, & VanYperen, 1993)으로 지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경

향은 남자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경제적 의존도가 심한 상황이 남성에게 비교적 더 큰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Munsch, 2015). 이와 같은 연구들은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한 의문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파워와 외도를 정적 관계로 확신하는 것에 제한이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에서 파워를 측정하는 방식에도 한계점이 존재한다. 파워가 높음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는 절대적 파워를 의미한다. 그러나 파워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Thibaut & Kelley, 1959) 한 개인의 절대적 파워만 가지고는 관계 내 파워의 역동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Langner & Keltner, 2008). 따라서 최근에는 파워를 측정하는 데 관계 내 상호작용도 포함하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Overback & Park, 2001; Lee & Tiedens, 2001), 그와 더불어 낭만적 관계 내에도 파워의 균형(balance of power)이라는 개념을 통해 맥락적 요인을 고려한다(Felmlee, 1994; Oyamoto, Fuglestad, & Snyder, 2010; Sprecher & Felmlee, 1997; Sprecher, Schmeekle, & Felmlee, 2006).

본 연구에서는 외도 의도에 대한 상황적 요인으로서 파워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절대적 파워가 아닌 관계적 역동성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계 내 파워 변인을 낭만적 관계 내 상대적 영향력 정도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보면 개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계없이, 관계 내 파워는 개인이 어떤 상대방을 만나, 상대와 어떤 관계 역동성을 형성하였는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상황, 맥락적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지각된 상대적 파워 수준을 측정하면, 통제할 수 없는 가외 요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관계 내 파워 수준을 시나리오로 조작함으로써 상황적 요인의 의미를 부각하였다.

###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관계 내 파워의 상호작용효과

외도 의도를 개인적 특성 혹은 상황적 특성 중 하나로만 설명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개인의 행동 및 의도에 대한 개인-상황 상호작용 접근(person-situation interaction approach; Funder, 2006; Mischel, 1977)은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상황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외도 의도와 관련해서도 이와 같이 개인-상황 상호작용적 접근의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예. 김세헌 등, 2017; Debusscher, Hofmans, & De Fruyt, 2017; Ozimek & Forster, 2017). 경험적으로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높은 개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외도 의도를 높게 가지지 않음을 생각해볼 때,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황적 요인의 가능성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따라서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상황적 요인을 선정하여 둘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앞서 언급한 자기애적 성격 특성의 특징(예. 자기도취, 웅대한 자기상, 타인 착취, 본인에 대한 특권 인식; Emmons, 1984, 1987)을 고려해볼 때, 낭만적 관계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파워 정도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적절한 변인이다.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파워는 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한 개인의 행동 및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사전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예. Hawk, Ter Bogt, Van Den Eijnden, & Nelms, 2015; Macenczak, Campbell, Henley, & Campbell, 2016). Hawk 등(2015)의 연구에서는 파워와 SNS에서의 부적절한 정보에 대한 위협지각 사이의 관계를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조절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높으면 파워는 위협지각에 정적 방향의 영향력을 미치지만,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낮을 때 위협지각에 대한 파워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

다. 또한 Macenczak 등(2016)의 연구에서도 자기평가 정도에 둘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높으면 파워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욱 자신을 과대평가 하는 반면에,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낮으면 파워가 과대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보면,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높은 개인이 관계 내 파워의 수준이 달라짐에 따라 다른 행동 혹은 의도를 보일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구체적으로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높은 수준의 파워를 추구한다는 점(Carroll, 1987; Joubert, 1998; Gungor, Eksi, & Aricak, 2012)을 미루어보았을 때, 관계 내 파워가 낮은 경우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높은 개인은 자신이 파워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외도 의도를 드러낼 수 있다. 반면, 관계 내 파워가 높은 경우에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높은 개인이 가진 파워 욕구가 현재 관계에서 충족되기 때문에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연구개요

본 연구는 외도 의도를 개인적 요인(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상황적 요인(관계 내 파워)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둘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자기애적 성격 특성은 외도 의도에 대해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며, 성차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관계 내 파워를 조작한 집단에서 외도 의도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즉, 외도 의도에 대한 관계 내 파워가 독립적으로 갖는 직접적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셋째, 외도 의도에 대해 관계 내 파워와 자기애적 성격 특성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구체적으로 관계 내 파워가 낮은 경우에만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간의 관계가

정적으로 유의하고 관계 내 파워가 높은 경우에는 둘 간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끝으로, 외도 의도에 대한 관계 내 파워와 자기애적 성격 특성 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의 여부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 방 법

#### 연구 참여자 및 절차

현재 미혼임과 동시에 연애 중이지 않은 25세 이상의 성인 남녀( $N = 167$ )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G-power 분석( $t$ -test 기반: effect size = .05; moderated small, power = .08) 결과, 필요 참여자 수는 159명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모집한 참여자 수가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나이는 30.89세( $SD=4.09$ )였으며, 25세에서 39세까지의 범위에 걸쳐 분포하였다. 참여자 선정에 연령 제한을 둔 이유는 시나리오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비교적 어린 나이의 성인 집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현재 연애 활동 여부에 제한을 둔 이유는 조작된 시나리오의 몰입에 있어 현재 상황이 반영될 수 있음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기혼이거나 연애 중인 참여자의 경우 조작된 시나리오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현재 본인의 상황을 투영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실제 연애 상황이 오염 변인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배제하고자 하였다(예. 김세현 등, 2017; Brewer, Hunt, James, & Abell, 2015; McIntyre, Barlow, & Hayward, 2015).

본 연구는 인터넷 설문 조사 업체를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 조사 시작 이전에 결혼과 연애 여부를 확인하여, 기혼 상태거나 현재 연애 중인 경우는 모집 안내문의 내용에 것에 의거하여 설문 참여에 제한을 두었다. 참여자들은 자기애적 성격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에 응답한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에 무선 할당되었다. 시나리오는 관계 내 파워가 높고 낮음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졌다. 참여자 자신이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주인공 인물이라고 상상하며 읽도록 지시하였고, 참여자가 조작 점검 문항에 응답한 뒤 외도 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조작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공통으로 제시되었으며, 현재 연애 중인 주인공이 동성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도중에 옆자리 이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고 그 이성 중 한 명이 주인공에게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시나리오를 읽은 뒤, 종속 변인인 외도 의도를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하고, 마지막으로 성별과 나이로 구성된 인구 통계학적 문항에 응답하는 것으로 설문을 종료하였다.

#### 측정 도구

##### 자기애적 성격 특성

자기애적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수정(1999)이 번안한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Raskin & Terry, 1988)을 사용하였다. 총 4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제시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겉손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다’, ‘나는 내 몸매(또는 체격)를 과시하기를 좋아한다’ 등이 있다.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NPI 척도를 통해 측정된 자기애적 성격 특성 점수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96).

##### 시나리오

참여자들은 연애 관계 내에서 파워가 본인 혹은 연인 중 상대적으로 누구에게 더 많이 주어졌는지에 대하여 조작한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에 할당되었다. 둘 중 하나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다음, 연구 참여자들에게 시나리오 속 주인공이 본인이라고 상상하며 읽도록 지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파워의 고저를 구분하는 기준은 관계 내에서 누가 의견 개진과 의사결정, 해결책 제시 등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지의 여부로 서술되었다. 시나리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밑줄은 주인공이 상대적으로 높은 파워를 가진 조건이며 괄호는 상대방(연인)이 더 높은 파워를 가짐으로써 주인공은 낮은 파워를 가진 조건이다.

당신은 현재 연애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신과 연인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두 사람 관계 내에서 보통 당신(당신의 연인)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 코스나 여행 계획들에 대해서도 당신(연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연인 관계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당신(당신의 연인)이 대화를 이끌어나가고, 해결책을 제시해왔습니다. 게다가 당신과 당신의 연인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때에도 당신(연인)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연인(당신)은 당신(당신의 연인)을 믿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당신(연인)의 일에 불만을 삼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즉, 당신이 연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계 내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관계 내 주도권을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 조작점검

위 시나리오의 관계 내 파워 조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작 점검 두 문항을 제시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나는 연인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연인은 나에게 의존하고 있다’이다. 두 문항 모두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 외도 의도

참여자들의 외도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하여 3가지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시나리오의 주인공은 이전에 제시한 시나리오의 주인공과 동일인임을 설명하고, 참여자 본인이 그 주인공이라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시나리오의 내용은 주인공이 동성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고, 그중 매력적인 한 명의 여성이 주인공에게 호감을 드러내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외도 기회를 묘사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은 동성 친구들과 오랜만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 중에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들이 다가오더니 합석을 제안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당신과 친구들은 합석에 응하게 되었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매력적인 한 여성이 당신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당신은 현재 연인이 있음을 밝혔지만, 그 여성은 자신도 장기적 관계를 원하는 것은 아니니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호감이 있는 것은 진심이라고 계속해서 자신을 어필하였습니다. 술자리가 끝나 갈 때쯤, 당신에게 호감을 비춘 여성은 자신의 연락처를 건네며, 친구들을 집에

보내고 따로 시간을 더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위의 시나리오를 모두 읽고 난 뒤, 3문항으로 외도 의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세현 등(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외도 의도 문항을 위의 시나리오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김세현 등(2017)의 연구에서는 Drigotas 등(1999)의 외도 척도(Infidelity Scale)를 발췌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그 여성이 준 연락처로 연락하시겠습니까?’, ‘친구들을 보내고 난 뒤, 그 여성과 따로 만나시겠습니까?’, ‘그 여성이 먼저 제안한다면, 그날 밤에 성적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으십니까?’이며, 7점 척도(1 = 전혀 아니다, 7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의 응답 점수 평균값을 구하여 ‘외도 의도’ 변인을 생성하였고, 이를 종속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문항들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29로 높은 수준이었다.

## 결 과

### 시나리오 조작 점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시나리오에서 조작한 관계 내 파워를 점검하였다.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조작 점검 두 문항 모두 시나리오 조건별로 유의한 평균 점수의 차이를 보였다(표 1). 즉, 시나리오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관계 내 파워 수준에 따른 조작 점검 문항의 평균 차이

조작 점검 문항	관계 내 파워	평균	표준편차	$t$	$df$	$p$	Cohen's $d$
나는 연인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낮음	3.88	1.39	-9.44	165	<.001	-1.46
	높음	5.70	1.06				
연인은 나에게 의존하고 있다	낮음	3.32	1.44	-8.90	165	<.001	-1.38
	높음	5.12	1.16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와 같이 관계 내 파워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모두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관계 내 파워와 외도 의도 간의 직접적 관계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 $r = .25, p = .001$ )를 보였다. 즉,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높을수록 외도 의도 또한 높은 수준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과 외도 의도 간의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외도 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관분석 결과에서 나이가 예상치 못하게 외도 의도와 정적 상관을 나타냄에 따라, 이후 모든 분석에서 나이를 통제 변인으로 두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외도 의도와 자기애적 성격 특성의 관계

상관 분석 결과, 외도 의도와 자기애적 성격 특성, 성별의 관계가 각각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간의 관계에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애적 성격 특성, 성

별, 둘 간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인으로 두고, 외도 의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고( $B = -0.01, SE = 0.29, \beta = -.01, p = .950$ ), 자기애적 성격 특성( $B = 0.47, SE = 0.14, \beta = .23, p = .001$ )과 성별( $B = -1.28, SE = 0.24, \beta = -.75, p < .001$ )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간의 관계는 남녀 관계 없이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가설 1).

관계 내 파워 조작에 따른 외도 의도의 차이

상관분석 결과로도 유추가 가능하지만, 관계 내 파워의 수준에 따른 외도 의도의 차이를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 표본  $t$ -검증을 시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외도 의도 평균 점수뿐만 아니라 외도 의도를 측정하는 각각의 문항들도 관계 내 파워가 높고 낮음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관계 내 파워를 조작한 집단에서 외도 의도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이 지지 되었다(표 3). 또한 외도 의도에 대해 관계 내 파워와 성별 간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F(1, 162) = 0.23, p = .629, \eta^2 = .001$ . 즉, 남녀 모두 관계 내 파워가 높거나 낮다고 해서 다른 수준의 외도 의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변인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나이	관계 내 파워	자기애적 성격 특성
성별	-	-	-			
나이	30.39	4.09	.04	-		
관계 내 파워	-	-	.03	-.02	-	
자기애적 성격 특성	3.93	0.83	.05	-.23**	-.00	-
외도 의도	2.74	1.70	.39***	.17*	.06	.25**

주. 관계 내 파워는 낮음(-1), 높음(1)으로 코딩 됨  
 주. 성별은 여성(-1), 남성(1)으로 코딩 됨  
 \*  $p \leq .05$ . \*\*  $p \leq .01$ . \*\*\*  $p < .001$ .

표 3. 관계 내 파워 수준에 따른 외도 의도의 차이

변인	조작 수준	평균	표준편차	<i>t</i>	<i>df</i>	<i>p</i>
외도 대상에게 연락	낮음	2.71	1.72	-1.38	165	.171
	높음	3.09	1.85			
외도 대상과의 만남	낮음	2.66	1.74	-1.24	165	.218
	높음	3.00	1.83			
성적 관계 수락	낮음	2.57	1.84	0.43	165	.667
	높음	2.44	1.93			
외도 의도	낮음	2.64	1.64	-0.75	165	.453
	높음	2.84	1.76			

도를 보이지 않았다.

외도 의도에 대한 관계 내 파워와 자기애적 성격 특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

외도 의도에 대한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관계 내 파워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외도 의도를 종속 변인으로, 관계 내 파워(낮음 = -1, 높음 = 1) 변인과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 처리를 한 자기애적 성격 특성 변인을 예측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외도 의도에 영향을 미쳤던 성별과 나이와 성별을 통제 변인으로 두었다. 분석 결과, 가설대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가설 3; 표 4).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 기울기 분석(Dawson, 2014)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결과, 관계 내 파워와 외도 의도의 정적 관계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낮은 경우에만 유의한 경향을 보였고( $B = 0.67, SE = 0.35, t = 1.91, p = .058$ ),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높은 경우일 때는 관계 내 파워와 외도 의도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B = -0.24, SE = 0.35, t = -0.69, p = .492$ . 외도 의도와 자기애적 성격 특성의 정적 관계는 관계 내 파워가 낮은 경우에만 유의하였고, 관계 내 파워가 높을 때는 유의하지 않았다(가설3; 표 5, 그림 1).

표 4. 외도 의도에 대한 관계 내 파워, 자기애적 성격 특성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

종속 변인	독립변인	<i>B</i>	<i>SE</i>	$\beta$	<i>p</i>
외도 의도	관계 내 파워	0.18	0.23	.10	.441
	자기애적 성격 특성	0.53	0.14	.26	<.001
	<b>관계 내 파워 × 자기애적 성격 특성</b>	<b>-0.57</b>	<b>0.28</b>	<b>-.28</b>	<b>.045</b>
	성별	-1.24	0.23	-.73	<.001
	나이	0.08	0.03	.20	.005

주. 관계 내 파워는 낮음(-1), 높음(1)으로 코딩 됨

주. 성별은 여성(-1), 남성(1)으로 코딩 됨

주. 외도 의도에 대한 관계 내 파워와 자기애적 성격 특성의 상호작용효과는 나이와 성별을 통제하지 않아도 유의하였다,  $B = -0.66, SE = 0.31, \beta = -.32, p = .034$ .

표 5. 관계 내 파워에 따른 외도 의도에 대한 자기애적 성격 특성의 단순 기울기 효과와 영차 상관

독립변인	기준 변인	단순 기울기				영차 상관	
		관계 내 파워	<i>B</i>	<i>SE</i>	<i>t</i>	<i>p</i>	<i>r</i>
자기애적 성격 특성	낮음	<b>0.81</b>	<b>0.18</b>	<b>4.42</b>	<b>&lt;.001</b>	<b>.43</b>	<b>&lt;.001</b>
	높음	0.24	0.22	1.13	.258	.06	.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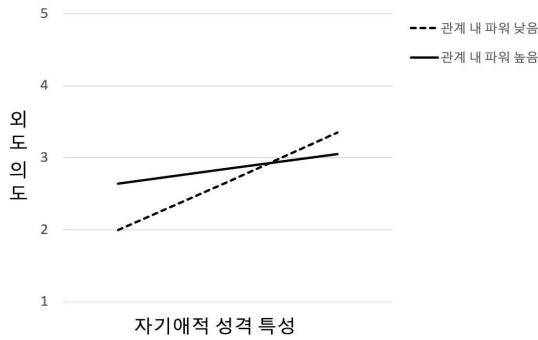


그림 1. 외도 의도에 대한 관계 내 파워와 자기애적 성격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

외도 의도에 대한 관계 내 파워와 자기애적 성격 특성, 성별 간의 삼원상호작용효과  
 작용 효과가 남녀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탐색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외도 의도에 대한 관계 내 파워, 자기애적 성격 특성, 성별 사이의 삼원상호작용효과를 확  
 관계 내 파워와 자기애적 성격 특성의 상호

표 6. 외도 의도에 대한 관계 내 파워, 자기애적 성격 특성, 성별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

종속 변인	독립변인	<i>B</i>	<i>SE</i>	$\beta$	<i>p</i>
외도 의도	관계 내 파워	0.22	0.23	.13	.341
	자기애적 성격 특성	0.57	0.14	.28	<.001
	성별	1.24	0.23	.73	<.001
	관계 내 파워 × 자기애적 성격 특성	-0.52	0.28	-.25	.064
	관계 내 파워 × 성별	0.30	0.45	.18	.509
	자기애적 성격 특성 × 성별	-0.07	0.28	-.03	.797
	<b>관계 내 파워 × 자기애적 성격 특성 × 성별</b>	<b>-1.60</b>	<b>0.55</b>	<b>-.79</b>	<b>.004</b>
	나이	0.08	0.03	.18	.008

주. 관계 내 파워는 낮음(-1), 높음(1)으로 코딩 됨  
 주. 성별은 여성(-1), 남성(1)으로 코딩 됨  
 주. 외도 의도에 대한 관계 내 파워, 자기애적 성격 특성, 성별의 삼원상호작용효과는 나이를 통제하지 않아도 유의하였다, *B* = -1.72, *SE* = 0.56,  $\beta$  = -.84, *p* = .003.

표 7. 기준 변인에 따른 외도 의도에 대한 관계 내 파워, 자기애적 성격 특성의 단순 기울기 효과와 영차 상관

독립변인	기준변인		단순 기울기				영차 상관	
	관계 내 파워	성별	B	SE	t	p	r	p
자기애적 성격 특성	낮음	여성	0.46	0.25	1.83	.069	.26	.082
		<b>남성</b>	<b>1.19</b>	<b>0.26</b>	<b>4.60</b>	<b>&lt;.001</b>	<b>.56</b>	<b>&lt;.001</b>
	높음	<b>여성</b>	<b>0.74</b>	<b>0.32</b>	<b>2.29</b>	<b>.023</b>	<b>.41</b>	<b>.008</b>
		남성	-0.13	0.27	-0.47	.636	-.12	.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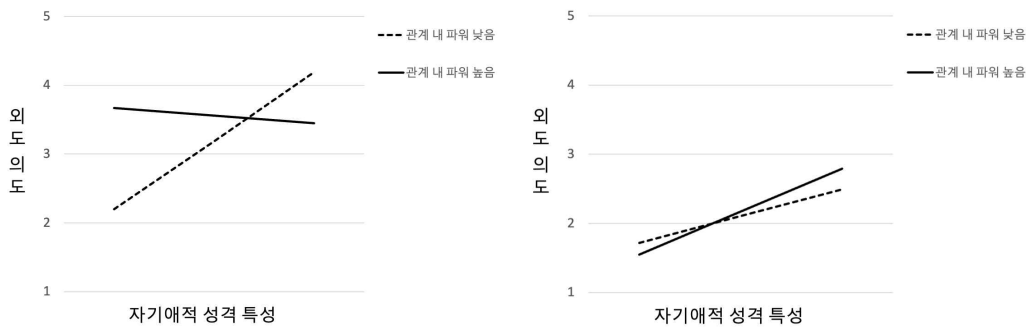


그림 2. 외도 의도에 대한 관계 내 파워와 자기애적 성격 특성, 성별 간의 삼원상호작용효과(왼쪽 그림: 남성, 오른쪽 그림: 여성)

인하였다. 위와 마찬가지로 삼원상호작용 분석에서도 나이를 통제 변인으로 두었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삼원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다(Dawson, 2014). 그 결과, 남성은 관계 내 파워가 낮을 때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간 정적 관계가 유의하였고, 여성은 관계 내 파워가 높을 때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간의 정적 관계가 확인되었다(표 7, 그림 2).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외도 의도에 대한 개인적 요인(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상황적 요인(관계 내 파워)의 영향력과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개인과

상황의 상호작용의 성차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간의 정적 관계는 관계 내 파워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관계 내 파워가 낮을 때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간의 정적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관계 내 파워가 높은 경우,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외도 의도에 대한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관계 내 파워의 상호작용이 성별에 다르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관계 내 파워가 낮을 때,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간의 관계가 정적으로 유의하였지만, 여성은 관계 내 파워가 높을 때 그 관계가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외도 의도에 대해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나타내는 일관된 정적 방향의 영향력을 재 확인하였으며, 자기애적 성격 특성의 영향력은

성별 효과와 무관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김세헌 등, 2017)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외도 의도가 관계 내 파워의 조작 여부에 따라 차이 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파워와 외도 의도 간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기존 연구(Davoudian, 2014)의 결과를 같은 맥락에서 지지하고 있다.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의 상호작용: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관계 내 파워

본 연구는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을 넘어, 외도 의도에 대한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관계 내 파워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함을 밝혔다. 관계 내 파워와 자기애적 성격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외도 의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항상 모든 경우에 외도 의도를 증가시키는 변인이 아님을 의미하며,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상호작용효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에 서술한바 대로지만, 전반적으로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높으면 관계 내 파워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외도 의도를 보고하였다.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낮은 경우에는 관계 내 파워가 높게 조작되었을 때가 더 높은 수준의 외도 의도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전자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외도 의도와 정적 관계가 있다는 기존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김세헌 등, 2017; Buss & Shackelford, 1997; Drigotas et al., 1999). 그러나 김세헌 등(2017)의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외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상황적 변인과는 독립적으로 강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했을 때, 관계 내 파워가 높은 경우에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간의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관계 내 파워가 높다는 것을 외도 의도를 더 쉽게 발현할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이 갖추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에서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높은 관계적 파워 조건일 때의 외도 의도를 증가시키지 못했다. 이는 높은 수준의 관계 내 파워가 자기애적 성격 특성을 가진 개인에게 외도 의도를 높이는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논리에 의거하여, 관계 내 파워가 낮을 때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높은 개인은 특정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도 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욕구적인 측면을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도 의도가 증가하는 메커니즘을 실제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추후 연구를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애적 성격 특성의 하위 요인을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애적 성격 특성 척도인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NPI; Raskin, & Terry, 1988)의 하위 요인 구분 방식은 학자들에 따라 많은 이견이 존재했지만(Ackerman, Witt, Donnellan, Trzesniewski, Robins, & Kashy, 2011; Corry, Mettitt, Mrug, & Pamp, 2008; Emmons, 1984; Raskin, & Terry, 1988), Ackerman과 그의 동료들(2011)이 나눈 권위, 과시성, 특권 의식의 3가지 하위 요인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 분석은 나머지 분석 방법은 동일하게 둔 채, 자기애적 성격 특성을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기애적 성격 특성의 하위 요인 중 어떤 요인이 관계 내 파워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나르시시스트가 낮은 관계 내 파워 상황에서 어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도 의도를 높게 지각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애적 성격 특성의 하위 요인 중 과시성(grandiose)만이 다른 하위 요인들(권위, 특권 의식)을 통제하였을 때도 관계 내 파워 수준과 여전히 경계선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반면, 권위와 특권 의식은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과시성도 자기애적 성격 특성 전체 점수와 마찬가지로 관계 내 파워가 낮을 때,

외도 의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고, 관계 내 파워가 높을 때는 둘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높은 자기애적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이 관계 내 파워가 낮은 상황에서 과시성을 충족하기 위해 높은 외도 의도를 보인다고 추론할 수 있다. 반면 관계 내 파워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미 그 자체로 과시성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외도 의도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파워 욕구가 정적 관계가 있다는 기존 연구들(Carroll, 1987; Joubert, 1998; Gungor et al., 2012)과 자기애적 성격 특성의 루두스적 사랑 방식을 파워 욕구로 설명할 수 있다는 연구(Campbell et al., 2002)를 고려해 보면, 관계 내 파워가 낮은 경우, 나르시시스트는 관계 내에서 자신의 파워 욕구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외도를 통해 자신의 파워 욕구를 충족하고자 할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과시성과 파워 욕구 간의 정적 관계(Carroll, 1987) 또한 이러한 추론을 지지한다. 그러나 관계 내 파워가 높은 경우에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높은 개인이 자신의 파워 욕구를 관계 내에서 충족하고 있음에도 높은 수준의 외도 의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파워 간의 관계를 파워 욕구 충족으로만 단정지어 설명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관계 내 파워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함을 밝힘으로써, 개인과 상황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외도 의도를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물론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밝히지 못한 한계점이 있지만, 기존 연구를 지지하고 보완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추후 이루어질 낭만적 관계 혹은 외도 연구에서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근거를 견고하게 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최근 연구(Vrabel, Zeigler-Hill, Lehtman, & Hernandez, 2020)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의 유형에 따라 관계 내에서 지각된 파워 정도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

며, 나아가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낭만적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지각된 파워가 조절함을 보고 하였다. 즉,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관계 내 파워는 직선적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라 할 수 있겠다. 자기애적 성격 특성은 파워 욕구와는 정적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파워 상태, 지각된 파워 정도와의 일관적 정적 관계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최근 연구의 동향에 맞춰 낭만적 관계 내에서의 파워는 개인의 성격 특성과는 독립적인 역할을 가진 하나의 상황, 맥락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지한다.

#### 자기애적 성격 특성, 관계 내 파워 상호작용의 성차

이와 더불어 외도 의도에 대한 관계 내 파워와 자기애적 성격 특성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가 성별과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정적 관계로 나타났는데(김세현 등, 2017),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간의 정적 영향력이 다른 상황적 조건에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여성은 관계 내 파워가 높은 조건에서, 그리고 남성은 관계 내 파워가 낮은 조건에서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간의 유의한 정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성별과 관계 내 파워를 기준으로 자기애적 성격 특성의 하위 요인들과 외도 의도 사이의 영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여성의 경우 관계 내 파워가 높을 때만, 그리고 남성의 경우 관계 내 파워가 낮을 때만 자기애적 성격 특성의 모든 하위 요인이 외도 의도에 정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 모두 자기애적 성격 특성의 하위 요인 중 과시성이 외도 의도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한 삼원상호작용효과는 탐색적 결과에 지나지 않으며,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다만 제한적으로나

마 성별에 따라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간의 관계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유의한 것을 해석해보고자 한다.

Vrangelova와 Ong(2014)의 연구에서는 높은 사회-성적 지향성을 가진 개인일수록 외도 경험 이후 자존감 및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불안 및 우울은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사회-성적 지향성이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Foster et al., 2006), 나르시시스트는 외도 행위를 통하여 삶의 만족도나 자신감 등을 획득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남자가 공동되게 자기애적 성격 특성 수준이 높을 때 더 높은 외도 의도를 보이는 것은 위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다만, 각기 다른 성별의 자기애적 성격 특성의 개인은 같은 관계 내 파워 수준을 다르게 해석하여, 그로 인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외도 의도를 높인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높은 여성은 관계 안에서 높은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에,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높은 남성은 관계 안에서 낮은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 외도를 통해서 자신의 불안과 결핍을 보완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 나르시시스트는 낮은 관계 내 파워 상황에서 자신의 파워 욕구가 결핍되었다고 느낌에 따라, 외도를 통해 자신의 불충분한 과시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관계 내 파워가 높다는 것은 자신이 만나고 있는 낭만적 파트너가 소극적이고 상대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여길 수 있는 여지를 주며, 이에 따라 느껴지는 불안 혹은 결핍을 해소 혹은 더 나은 매력을 지닌 상대방과의 외도를 통해 자신의 파워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외도를 보이는 것일 수 있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여성의 경우 관계 내 파워가 낮을 때에도 유사하게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간의 관계가 정적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은 관계 내 파워가 높을 때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간의 관계가 오히려 부적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를 명확하게 해석하기에는 제한이 있지만,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제한적 해석에 의거하면,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높은 남녀 모두 자신의 불안이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동일한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외도 의도를 보이지만, 그 심리적 메커니즘이 발동하는 상황적 요인(관계 내 파워 수준)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삼원상호작용효과 결과는 흥미로우나 해석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동일한 결과를 재현하고,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 제언

본 연구는 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성격, 능력, 인구통계학적 조건 등 개인적 요인과 관계없이 낭만적 상대방과의 역동성으로 결정되는 관계적 파워를 상황적 특성으로 정의하고,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력을 극복하기 위해 실제 외도 행동이 아닌 외도 의도를 종속변인으로 삼았다. 그렇다고 해서 본 연구의 의미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나, 의도가 행동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Sheeran & Webb, 2016)에서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최근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로 외도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 고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상현실과 아이트레킹을 융합하면, 가상현실 속에서 연인(가상 아바타)과 데이트 중 다른 사람(가상 아바타)에게 눈길을 돌리는 정도 등은 충분히 측정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상현실에서도 성적 외도 행동 자체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외도를 예측할 수 있는 다른 행동 변인들은 가상현실이라면 충분히 윤리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고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나이가 외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 현재 낭만적 관계 중인 참여자를 제외함으로써 외도 의도를 측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외 변인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으나, 연령까지 통제하지는 못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과 나이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했는데, 여성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외도 의도가 낮아졌으나, 남성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외도 의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만으로는 30대에서 외도 의도에 대한 성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비교적 젊은 20대의 성 관념이 변화된 것인지 확인은 불가능하다. 다만, 본 연구에 참여한 20대는 1990년대 생들이, 30대는 1980년대 생들이 주를 이루었고, 한국 사회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는 큰 사회문화적 변화가 발생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성 관념의 세대차일 가능성이 더 크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였고, 경제적으로는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며, 문화적으로는 가부장 문화가 붕괴하고 양성 평등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적 변화는 연령이 어릴수록 점진적으로 더 빠른 변화를 경험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관념이 변화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세대 간 차이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 모형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나이를 변인으로 고려하지 않고 통제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나이를 하나의 독립적인 변인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한 관계 내 파워와 자기애적 성격 특성의 상호작용이 성별에 의해 달라지는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과 남성 나르시시스트가 왜 서로 다른 관계 내 파워 수준에서 외도 의도가 증가하는지를 살펴보는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의 상호작용에서의 성차는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었기에 매개 변인을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자기애적 성격 특성의 하위 요인을 구분하여 추가 분석함으로써 과시성이 하나의 요인임을 제한적으로 유추하고 있을 뿐이다. 혹은 앞선 논의에서 언급했듯이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석해 보면 남녀 나르시시스트들의 파워 욕구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발현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를 통해 외도 의도에 대한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상황적 요인의 영향력을 보다 자세하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외도는 심리적 고통, 이혼, 강력 범죄 등의 개인적 및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부터 꾸준한 학술적, 사회적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국내 심리학계의 관심은 아직도 저조하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외도 의도나 외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황적 혹은 개인적 특성을 찾고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외도를 예방하거나 적절한 교육 방안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후속 연구들이 본 연구 결과를 확장하여 외도와 관련된 심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이 외도를 일으키는 개인적, 상황적 요인과 그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들이 충분히 누적될 때,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외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세현, 허용희, 박선웅 (2017).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낭만적 관계에서의 외도 의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2), 1-20.
- 뉴스1 (2021. 12. 04). '외도 추궁' 여친 얼굴·온몸 때려 6주 상해 20대 실행. <https://www.news1.kr/articles/?4513055>에서 2021년 12월 27일 자료 얻음.



- 서울신문 (2015. 09. 13). [2015 불륜 리포트] 기혼자 24% · 월급 700만원 이상 52% '외도'... 불륜의 통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914002003>에서 2021년 12월 27일 자료 얻음.
- 우성범, 남숙경, 이승민, 양은주 (2012). 이차원적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연애관계 양상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1), 87-101.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ckerman, R. A., Witt, E. A.,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obins, R. W., & Kashy, D. A. (2011). What does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really measure?. *Assessment*, 18(1), 67-87.
- Alexander, M. G., & Fisher, T. D. (2003). Truth and consequences: Using the bogus pipeline to examine sex differences in self reported sexuality. *Journal of Sex Research*, 40(1), 27-35.
- Atkins, D. C., Baucom, D. H., & Jacobson, N. S. (2001). Understanding infidelity: Correlates in a national random sampl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4), 735-749.
- Bentley, C. G., Galliher, R. V., & Ferguson, T. J. (2007). Associations among aspects of interpersonal power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in adolescent romantic couples. *Sex Roles*, 57(7-8), 483-495.
- Berman, M. I., & Frazier, P. A. (2005). Relationship power and betrayal experience as predictors of reactions to infide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12), 1617-1627.
- Brewer, G., Hunt, D., James, G., & Abell, L. (2015). Dark Triad traits, infidelity and romantic reveng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3, 122-127.
- Buss, D. M., Larsen, R. J., Westen, D., & Semmelroth, J. (1992). Sex differences in jealousy: Evolution, physiology, and psychology. *Psychological Science*, 3(4), 251-256.
- Buss, D. M., & Shackelford, T. K. (1997). Susceptibility to infidelity in the first year of marriag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2), 193-221.
- Buss, D. M., Shackelford, T. K., Kirkpatrick, L. A., Choe, J. C., Lim, H. K., Hasegawa, M., ... & Bennett, K. (1999). Jealousy and the nature of beliefs about infidelity: Tests of competing hypotheses about sex differences in the United States, Korea, and Japan. *Personal Relationships*, 6(1), 125-150.
- Campbell, W. K. (1999). Narcissism and romantic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6), 1254-1270.
- Campbell, W. K., & Foster, C. A. (2002). Narcissism and commitment in romantic relationships: An investment model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4), 484-495.
- Campbell, W. K., Foster, C. A., & Finkel, E. J. (2002). Does self-love lead to love for others?: A story of narcissistic game play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2), 340-354.
- Carroll, L. (1987). A study of narcissism, affiliation, intimacy, and power motives among students in business administration. *Psychological Reports*, 61(2), 355-358.
- Carroll, L., Hoenigmann-Stovall, N., & Whitehead, G. I. (1996). The interpersonal impact of narcissism: A comparative study of entitlement and self-absorption factor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1, 601-613.
- Corry, N., Merritt, R. D., Mrug, S., & Pamp, B. (2008). The factor structure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 Assessment*, 9(6), 593-600.
- Daly, M., Wilson, M., & Weghorst, S. J. (1982). Male sexual jealousy. *Ethology and Sociobiology*, 3(1), 11-27.
- Davoudian, T. (2014). *I Cheat Because I Can: Power, Sexism And Approval Of Infide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arquette University, Wisconsin.
- Dawson, J. F. (2014). Moderation in management research: What, why, when, and how.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29(1), 1-19.
- Debusscher, J., Hofmans, J., & De Fruyt, F. (2017). Core self-evaluations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sk complexity, job resources, and performance.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3), 1-10.
- Drigotas, S. M., & Barta, W. (2001). The cheating heart: Scientific explorations of infidel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5), 177-180.
- Drigotas, S. M., Safstrom, C. A., & Gentilia, T. (1999). An investment model prediction of dating infide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3), 509-524.
- Dunbar, N. E., & Burgoon, J. K. (2005). Perceptions of power and interactional dominance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2(2), 207-233.
-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3), 291-300.
-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1-17.
- Felmlee, D. H. (1994). Who's on top? Power in romantic relationships. *Sex Roles*, 31(5-6), 275-295.
- Foster, J. D., Shrira, I., & Campbell, W. K. (2006). Theoretical models of narcissism, sexuality, and relationship commit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3(3), 367-386.
- Funder, D. C. (2006). Towards a resolution of the personality triad: Persons, situations, and behavior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0(1), 21-34.
- Garcia, J. R., Reiber, C., Massey, S. G., & Merriwether, A. M. (2012). Sexual hookup culture: A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6(2), 161-176.
- Grello, C. M., Welsh, D. P., & Harper, M. S. (2006). No strings attached: The nature of casual sex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ex Research*, 43(3), 255-267.
- Gruenfeld, D. H., Inesi, M. E., Magee, J. C., & Galinsky, A. D. (2008). Power and the objectification of social targe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1), 111-127.
- Guitar, A. E., Geher, G., Kruger, D. J., Garcia, J. R., Fisher, M. L., & Fitzgerald, C. J. (2016). Defining and distinguishing sexual and emotional infidelity. *Current Psychology*, 1-13.
- Gungor, I. H., Eksi, H., & Aricak, O. T. (2012). Value Preferences Predicting Narcissistic Personality Traits in Young Adults. *Educational Sciences: Theory and practice*, 12(2), 1281-1290.
- Hawk, S. T., Ter Bogt, T. F., Van Den Eijnden, R. J., & Nelemans, S. A. (2015). Too little power, too much information! Power, narcissism, and adolescents' disclosures on social networking sit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2, 72-80.
- Henline, B. H., Lamke, L. K., & Howard, M. D. (2007). Exploring perceptions of online infidelity. *Personal Relationships*, 14(1), 113-128.
- Hensley, W. E. (1996). The effect of a ludus love style on sexual experienc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24(3), 205-212.
- Joubert, C. E. (1998). Narcissism, need for power, and social interest. *Psychological Reports*, 82(2),

- 701-702.
- Kunstman, J. W., & Maner, J. K. (2011). Sexual overperception: Power, mating motives, and biases in social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2), 282-293.
- Lalasz, C. B., & Weigel, D. J. (2011).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extradyadic relations: The mediating role of sensation seeking on intentions to engage in sexual infide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7), 1079-1083.
- Lammers, J., & Maner, J. (2016). Power and attraction to the counternormative aspects of infidelity. *The Journal of Sex Research, 53*(1), 54-63.
- Lammers, J., Stoker, J. I., Jordan, J., Pollmann, M., & Stapel, D. A. (2011). Power increases infidelity among men and women. *Psychological Science, 22*(9), 1191-1197.
- Lampard, R. (2014). Stated reasons for relationship dissolution in Britain: Marriage and cohabitation compared.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0*(3), 315-328.
- Langner, C. A., & Keltner, D. (2008). Social power and emotional experience: Actor and partner effects within dyadic interac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3), 848-856.
- Lee, F., & Tiedens, L. Z. (2001). 2. Is it lonely at the top?: The independence and interdependence of power holder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23*, 43-91.
- Luo, S., Cartun, M. A., & Snider, A. G. (2010). Assessing extradyadic behavior: A review, a new measure, and two new mode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3), 155-163.
- Macenczak, L. A., Campbell, S., Henley, A. B., & Campbell, W. K. (2016). Direct and interactive effects of narcissism and power on overconfid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1*, 113-122.
- McIntyre, J. C., Barlow, F. K., & Hayward, L. E. (2015). Stronger sexual desires only predict bold romantic intentions and reported infidelity when self control is low.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67*(3), 178-186.
- Mischel, W. (1977). The interaction of person and situation. In D. Magnusson & N. S. Endler (Eds.), *Personality at the crossroads: Current issues in interactional psychology* (pp. 333-35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Moller, N. P., & Vossler, A. (2015). Defining infidelity in research and couple counseling: A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41*(5), 487-497.
- Munsch, C. L. (2015). Her support, his support: Money, masculinity, and marital infide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0*(3), 469-495.
- Neff, K. D., & Suizzo, M. A. (2006). Culture, power, authentic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ithin romantic relationships: A comparison of European American and Mexican Americans. *Cognitive Development, 21*(4), 441-457.
- Oyamot Jr, C. M., Fuglestad, P. T., & Snyder, M. (2010). Balance of power and influence in relationships: The role of self-monitor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7*(1), 23-46.
- Overbeck, J. R., & Park, B. (2001). When power does not corrupt: superior individuation processes among powerful percei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4), 549-565.
- Ozimek, P., & Förster, J. (2017). The impact of self-regulatory states and traits on Facebook use: Priming materialism and social comparison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1*, 418-427.
- Pittman, F. S. (1993). Beyond betrayal: Life after infidelity. *Psychology Today-new york-*, 26, 32-32.
- Prins, K. S., Buunk, B. P., & VanYperen, N. W. (1993). Equity, normative disapproval and

- extra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0(1), 39-53.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90-902.
- Reis, H. T., Collins, W. A., & Berscheid, E. (2000). The relationship context of human behavior and development. *Psychological Bulletin*, 126, 844-872.
- Rusbult, C. E. (1980). Commitment and satisfaction in romantic associations: A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2), 172-186.
- Schmitt, D. (2003). Universal sex differences in the desire for sexual variety: Tests from 52 nations, 6 continents and 13 islan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1), 85-104.
- Shackelford, T. K., LeBlanc, G. J., & Drass, E. (2001). Emotional reactions to infidelity. *Cognition and Emotion*, 14(5), 643-659.
- Sheeran, P., & Webb, T. L. (2016). The intention - behavior gap.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0(9), 503-518.
- Simpson, J. A., Farrell, A. K., Oriña, M. M., & Rothman, A. J. (2015). Power and social influence in relationships. In M. Mikulincer, P. R. Shaver, J. A. Simpson, & J. F. Dovidio (Eds.), *APA handbook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 Interpersonal relations* (pp. 393-420).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impson, J. A., & Gangestad, S. W. (1991).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osexuality: evidence for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870-883.
- Sprecher, S., & Feinlee, D. (1997). The balance of power in romantic heterosexual couples over time from "his" and "her" perspectives. *Sex Roles*, 37(5-6), 361-379.
- Sprecher, S., Schmeeckle, M., & Feinlee, D. (2006). The principle of least interest: Inequality in emotional involvement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27(9), 1255-1280.
- Thibaut, J. W., & Kelley, H. H. (1959). Power and dependence.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7, 100-125.
- Whisman, M. A., & Wagers, T. P. (2005). Assessing relationship betrayal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1(11), 1383-1391.
- Vrabel, J. K., Zeigler-Hill, V., Lehtman, M., & Hernandez, K. (2020). Narcissism and perceived power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7(1), 124-142.
- Vrangalova, Z., & Ong, A. D. (2014). Who benefits from casual sex? The moderating role of sociosexuality.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5(8), 883-891.
- Zhang, Y. (2010). A mixed-methods analysis of extramarital sex in contemporary China. *Marriage and Family Review*, 46(3), 170-190.

1 차원고접수 : 2022. 03. 10.

수정원고접수 : 2022. 05. 19.

최종게재결정 : 2022. 05. 20.

## Narcissistic personality and infidelity intention: Interaction effect of relational power status

Seheon Kim

Jeongyun Han

Taekyun Hur

Korea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tic personality, relational power status, and infidelity intention. Based on the person  $\times$  situation interaction perspective, the each effect of narcissistic personality as personal factor and relational power status as situational factor 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both were investigated. Also, we tried to confirm the gender difference of the interaction effect on infidelity intention. For analysis, unmarried single adults ( $n = 167$ ) were recruited and they completed a questionnaire measuring their level of narcissism. Then participants had two scenarios as followed. Firstly, they read one hypothetical situation about relational power (high vs. low). Secondly, participants read a second hypothetical scenario in which they are given a chance to cheat on their partner and answered questions about their infidelity intention. As expected, the interaction effect of narcissism and relational power status was significant. Specifically,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m and infidelity intention was revealed only when power was manipulated low. The three-way interaction(narcissism, power, gender) was also significant. For me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m and infidelity intention was revealed only when power was low, however, for women, the positive relationship was significant only when power was high.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the person and situation interaction on infidelity intention.

*Keywords* : infidelity intention, narcissism, relational power status, gender difference, person  $\times$  situation interaction